

지리체와 근대 태국의 탄생

통차이 위니짜꾼 지음, 이상국 옮김, 『지도에서 태어난 태국: 국가의 지리체 역사』
(진인진, 2019)를 읽고

박경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I. 태국에 대한 물음

태국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역사에 대한 논의로 들어가면 종종 당혹감을 느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많은 태국인들이 13세기부터 시작된다는 자신들의 역사 기원에 대해 큰 의문을 갖지 않고 수긍하기 때문이다. 태국 역사와 관련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 중 하나인 와이어트(Wyatt)의 저서 *Thailand: A Short History*(태국: 짧은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태국의 역사—적어도 태국인들이 인정하는 자신들의 역사—는 다른 주변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짧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태국인은 초·중·고 시절을 거치면서 수코타이 왕국을 타이족이 세운 최초의 왕국이라고 배운다. 타이족의 기원에 관한 학설들은 아직도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국가나 민족의 기원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한국에서는 기원전 233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단군이라는 민족의 시조가 탄생한 과정과 배경을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널리 가르친다. 이런 한국인들에게 태국 사람들의 역사관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정체성은 또 어떠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 종교, 언어, 문화가 혼재해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이지만, 상좌부불교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대륙부 동남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나라별로 가려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대륙부 동남아시아 나

라 사람들은 비슷한 시기에 송끄란 축제를 즐기고 불교 명절을 지내며, 비슷한 주거 양식, 비슷한 복식과 비슷한 식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종교에서 기원한 세계관의 유사성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접경 지역에서는 언어까지도 비슷한 지역이 많아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구별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국의 문화라는 것은 정말 태국의 것인가. 태국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태국적인 것과 태국적이지 않은 것의 경계는 무엇인가. 그러한 경계가 있기는 한 걸까. 만약 있다면, 그 경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언제부터 있었던 것일까.

이 책은 이러한 물음에 대해 깊은 울림을 주는 흥미로운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태국의 역사에 대해 기존의 여러 학자들과는 다른 가설을 대법하고도 명징한 언어로 들려준다. 이 책은 모범답안이 적힌 교과서는 아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얻게 되는 해답보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나 그 질문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II. 통차이 위니짜꾼과 ‘지리체’

이 책은 본질적으로 역사서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연대기적으로 사건을 나열한 역사서와는 사뭇 다르다. 저자가 서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책은 이야기책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저자는 역사가로서의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저자 자신이 의도한 바대로, 독창적이고 견고한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합당한 의문을 갖게 한다.

통차이 위니짜꾼은 태국의 석학들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인물이다. 탐마삿대학교 역사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호주 시드니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부터 은퇴하기 전까지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재직하며 많은 저서와 연구를 발표했다. 특히 율긴이의 말에서도 소개했듯이, 저자의 박사 논문에서 비롯된 본 저서가 발표 당시 학계에 미친 파급력은 대단했다.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여러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민족주의와 관련해 가장

유명한 저서라 할 수 있는 『상상의 공동체』의 저자 베네딕트 앤더슨에게 큰 영감을 주어 그 책의 개정판에 새로운 장을 추가하게 했을 정도이다. 이후에도 여러 학자들의 지리체(Geo-body)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본 책에 사용된 ‘지리체’라는 용어는 독자들에게 익숙지 않을 수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는 저자인 통차이가 만들어낸 독창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지리체란 무엇인가. 익숙한 용어를 빌리자면 지리체는 영토성에 가까운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지리학적으로 말하면 국가의 지리체는 객관적으로 구분 가능한 지표면의 일정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눈에 구체적 현실로 드러난다”(53쪽). 즉, 지도와 결합하여 시각화된 영토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리체는 단순히 공간이나 영토를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리체는 국가의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은 궁지, 충성, 사랑, 열정, 편견, 미움, 이성, 우둔의 근원이다. 이것은 또한 국가성의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여 국가성에 관한 다른 많은 개념들과 관행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47쪽). 즉 지리체는 단순히 물리적 영토나 영토의 구획을 나타내는 매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존재로서 국가성이나 민족성을 만들어 내거나 고취시키기도 하고, 그러한 국가성이나 민족성을 통해 다른 국가나 민족과 구별 짓게 하는 능동적인 매개로 기능하게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지리체가 국가나 민족과 함께 시시각각 변화하는 유기체라는 저자의 주장은 결론만 떼어 본다면 자칫 논리의 비약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완고한 독자들을 의식한 듯 저자는 책 전반에 걸쳐 지리체 담론이 태국의 역사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 전통 공간의 개념에서 근대 시암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근거를 통해 면밀하고도 집요한 논증을 시도한다. 전통적 공간의 개념은 이후 서구 열강의 식민주의와 함께 경계, 영토주권, 가장자리 등에서 비롯된 지리지식으로 대체되었는데, 저자는 특히 지도의 개발로 명백한 경계의 탄생이 요구되면서 이것이 시암의 근대화를 주동한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타이다움, 태국과 타자와의 이항대립을 통한 국가성, 민족주의와 그 폭력성 등으로 이야기는 이어져 나간다. 저자의 이야기는 지도가 단지 매개체로서만 기능하지 않고 상상의 실체, 즉 경계선을 만드는 역행의 상황이 발생하여 “지도가 국가를 창조했다”(366쪽)는 데에서 정점에 이른

다. 훌륭한 이야기꾼을 자처하는 저자는 책 전반에 걸쳐 방대한 양의 참고문헌과 사료 증거를 독자에게 제시하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어느 대목의 서술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적이다. 저자의 이야기를 따라 읽어 내려가는 독자는 함께 질문을 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고,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III. 비판적 시각의 태국 역사책

저자가 서문에서 언급한 태국학 연구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게 다가온다. 조금 길지만 저자의 말을 간추려 인용하겠다.

많은 태국 학자들은 이(타이다움)에 대한 연구라면 태국인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잘 아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타이다움, 태국, 태국인, 태국학, 태국에 관한 그 무엇이든, 파랑(서양인)들이 이에 접근할 수는 있으나 태국인들이 하는 만큼 저 내면 깊숙한 곳에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영역이다. 그들이 보기에 ‘태국적인 것’은 학문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태국인이 수행하는 태국 연구는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라는 패러다임 담론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담론은 태국인에게 관점, 감정, 가치를 비롯해 한계, 터부, 변명, 타당성을 제공한다. 요점은 어떤 해석이 올바르고 정당하게 타이다움을 정의하는가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안을 둘러싸고 태국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쟁투가 동양을 기록하려는 오리엔탈리스트의 욕망보다 덜 폭력적이고, 덜 압제적이고, 덜 지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내 연구는 태국의 국가성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관한 역사이다. 그러나 국가 건설의 과정을 논의하기보다는 시암이 산만한 구성물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타이다움은 그저 보잘것없는 태생을 가진 구성물일 뿐이다(34-46쪽).

저자는 서문에서부터 자신의 견지를 확실히 밝히고 있다. 태국인 학자로서 자칫 있을 수 있는 민족주의적 편향성을 철저히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내부인의 시선으로 더 내밀한 곳을 들여다보고 이를 과감히 꺼내어 도마 위에 올려놓는 저자의 용기와 균형 감각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태국을 연구하는 학

자의 한 사람으로서 평자 자신을 반성하게 된다. 그간 태국의 역사에 관하여 한국어로 소개된 책은 다른 나라의 역사서들과 비교할 때 많지 않은 편이다. 태국의 역사는 주로 동남아시아 역사책의 한 챕터, 또는 태국의 사회문화 관련 책의 한 부분으로 짧막하게 소개된 경우가 많았다. 이마저도 한국인 저자가 직접 저술한 경우는 드물고, 주로 서양인이 쓴 외국책의 번역본인 경우가 많았다. 오직 태국의 역사만을 다룬 단행본은 손에 꼽는다. 비판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 일부 저서들을 제외하고는 발표된 많은 역사서들의 서술은 대부분 태국 역사학계의 주류 학설의 담론을 따른다. 마치 모범답안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쓴 것처럼 정형화되어 있어 매끈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사실 그 이면에는 경합하는 많은 가설과 이론과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고,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독자들은 그러한 경합에 대해 알고자 하고 알아내야 한다. 이러한 소명을 게을리한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평자는 부끄러움을 느꼈음을 고백한다.

난민과 국경 등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 대표적 신진 연구자 가운데 한 사람인 역자가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느꼈을 충격과 감동을 평자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을 번역하면서 역자가 대면했을 수많은 고군분투의 과정들이 그려진다. 무릇 번역이라는 것은 창작 그 이상의 고민과 고통을 수반하는 지난한 작업일 것이다. 게다가 본 저서의 번역에서 그 고민과 고통은 “지리체”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는 난해함과 로마자로 표기된 수많은 태국어 고문서 사료들이 인용된 방대한 자료를 소화하는 어려움은 물론이고,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민감한 역사적 사안들에 대한 저자의 표현과 어휘들에 맞는 가장 적절한 대응어를 찾는 고민까지 수반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그 밖에도 평자의 짐작을 넘어서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마침내 이 책을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해 준 역자의 노고와 신념에 감사를 보낸다.

IV. 태국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태국을 넘어서는 이야기

『지도에서 태어난 태국』 속의 역사 이야기는 질문과 해답, 추측과 근거, 가설과 또 다른 질문이 난무하며 격론의 장을 이룬다. 많은 태국 사람들이 종종 저

자 통차이를 두고 “깃넝끄럽(를 밖에서 생각한다, 전통적인 관점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한다고 표현한다. 1976년 10월 6일 민주화 운동 당시 학생운동 지도자로 활동했고, 그 결과 수년간 투옥되었다가 풀려나기도 했던 통차이 위니짜꾼. 그의 주장들은 아직까지도 태국 역사학계의 주류를 이루는 왕실민족주의 사관의 학자들 주장과 비교하면 너무나 비판적이고 급진적이어서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국 독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부분은 실제로 저자의 추론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서술되기도 했다. 이 한 권의 책만으로 학생들에게 태국의 역사를 가르칠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가르치고자 하는 역사가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근대 시암의 국가 형성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지라도 말이다. 다만, 이 책이 다소 경직되어 보이는 태국의 역사 연구계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었고, 그 주장과 근거에 대한 반론과 지지와 또 다른 가설과 검증들이 태국 역사학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이 책은 태국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태국을 넘어서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리체”는 태국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지만, 세계 여러 국가들의 역사를 관통하는 보편성을 지닌 개념이기도 하다. 다른 나라들과 국경을 접한 많은 국가들, 불분명했거나 공유되었던 경계로 인해 분쟁 대상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경우들, 그 과정에서 발생하고 경험한 국가성과 민주주의의 폭력성 등, 이 책은 그 모든 긴장과 변화와 분쟁과 비극에 대한 이야기이며, 동시에 그 과정에서 타자로 치부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자는 “국가의 기원을 아득한 과거에서 찾는 것이 왜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그 뻘한 국가의 구성물들을 주목하고 하나하나 분석하여 그 덧없는 결합을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366쪽)라는 구절이 품고 있는 울림과 저자가 서문을 통해 전달한 “내 바람은 대단치 않다. 언젠가 모든 비이성적인 이성이 날날이 드러나 사람들이 더 관대하고, 더 사려 깊게 되는 것이다”(24쪽)와 같은 구절에 드러난 이 책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독자들에게 꼭 전달되기를 바란다. 또한, 통차이라는 한 사람의 뛰어난 학자와 또 다른 많은 통차이와 같은 학자들이 견뎌내야 했고, 또 견뎌내고 있을 시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질문과 다양한 대답들과 건강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그리고 더 많은 한국 학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투고일: 2019년 7월 10일 | 게재확정일: 2019년 7월 30일

